

1.은사

**은사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생기는것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들에게 무상으로/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며 영어로는 CHARISMA 라고합니다. 이 이외에 PNEUMATIKA(프뉴마티카):이는 “성령”으로 번역되며,은사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음을 알려주며,DIACONIA(디아코니아):이는 “섬기는 직책” 이라고 번역되고,이는 이웃의 유익을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것 임을 알려 줍니다.

은사는주시는 방법/기능에 따라서 크게 2 가지로 나눕니다.  
1)개인의 성장을위해서주시는은사.즉 성령 7 은 이라고 하지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2) 남을 도우라고 주신은사/즉 “공동 유익의 은사” 혹은 “봉사의 은사”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고린 12,7**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 고린 12,8-10**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지식의 말씀,믿음,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 내는 힘, 여러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

우리가 CHARISMA 가 있다 하는말은 “저사람은 특별하고, 비범하고, 범상치않은 사람 이어서 ,그와있으면 특별한 힘이 느껴지고,특별한 힘이 나타 나는것 같고, 우리와 다름이 느껴진다.이말은 성령의 은사 즉 CHARISMA 에서 나온말입니다  
어느사람에게 예언의 카리스마가 주어진다면,다른사람에게서 못느끼는 “하느님으로 오는 예언이 느껴 집니다. 치유의 카리스마가주어진다면....

**은사의 특성**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에관한 교의헌장”12 항에는,“은사의 특성”에대해서 “성령께서 모든계통의 신도들에게 특은(EXTRA ORDINAL GRACE)을 나누어 주심으로서 교회의 쇄신과 보다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 시킨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특은을 주시는 이유는,우리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여 활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또한 기쁨마음으로 희생적인 봉사를하도록 도와 주어,은사는 가정과 교회를 변화 시키고 복음을 널리 전파 되게 합니다. 또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또는 이미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지요.

예) 초대교회에서는,신자들의 직분이/역할이 주어진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지요,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건설하고 성장하였지요.

**예제 4,11**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카리스마 즉 “특은” 은 구원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은총은 아닙니다.  
과외로 덤으로 주셨으니까,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없이는 교회의 성장은 않됩니다.그러므로 교회 차원에서는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특은에의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 될때마다 ,은총의 축제가 되어야하고, **주님의 카리스마적인 말씀이 선포되어**, 그안에서 예언이 일어나야되고, 치유가 일어나야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보지는 못했지만,예수의 현존을 보아야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CHARISMA=특은의 표출은 성령쇄신 기도회 참석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누리는것 이라기보다 모든 카톨릭 신자는,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하고**,은사를 구해야하고,  
**개발 시켜야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위해서 들어 나야하며,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가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EP (복음적 사목/ Evangelical Pastoral) -1234**

요사이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차동엽신부님,아시지요? 차신부님의, **“본당 활성화 모델(EP-1234)의 구성을보면, 1=”토양에 속하는것=성령, 2=뿌리에 속하는것=전신자 은사개발/기도(영성), 3=줄기에 배속되는것=뉴 리더쉽, 4=가지에 속하는것=은총의 축제,고감도 사랑, 아주 저는 이 PROGRAM 에 현재 매료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EP-1234 의 VISION 을 바탕으로,“교회활성화 10 계명” 이 창조 되었고, 이는 현재 우리기도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이 반영이 된것입니다 (1 계명=성령이**

현동하게 한다, 2 계명=합심하여 기도한다, 3 계명=신자의 은사를 일깨운다.) 우리는 나무가 잘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기본이 되는,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현동하게 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은사의 일깨움을 도모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미약 하나마, 저를 도구로 파견하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은사를 받으려면?** 어느 은사에 다 적용되는 성서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공부를(책으로, 강의로, 피정등) 한 후, 내가 XX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 정립을 하고, XX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라. xx 은사가 이루어 질 때가 있다. 그때부터 그 은사는 내 것이 된다. 모든 은사는 물론 성령께서 주시지만, 공부한 후에 청원하면, 많은 은사를 받는다.

**1 고린 14, 1** <sup>1</sup>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1 고린 12, 31** <sup>31</sup>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 **은사 사용시 주의할 사항.**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하느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태 7, 21-23** <sup>21</sup>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 간다. <sup>22</sup>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sup>23</sup>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고 말할 것이다."

### **2) 성령기도회원의 사명 (MISSION STATEMENT).**

교회 쇄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자의 청빈운동>>>>>근세의 교회의 전례운동(..>>>>>20세기 성령쇄신운동  
(프란치스코등) (특히 성시간 등)

현세에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성령 쇄신운동입니다.

(Charismatic Renewal). "우리는 현대의 교회를 쇄신하고 있는 성령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초대교회에

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 마음과 열성을 불을 지피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들 같이 "우리는 하느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현대 교회에 파견되어진 도구들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나?).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수도자/신부/은수자들 만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마음을 성령께 열기만 하면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받기 위해 성령기도회에 온다" "은사 받기 위해 온다" "복음성가가 좋아서 온다. XXXXX 때문에 온다.

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요. 기초적인/초보적인 성령기도회에서는 맞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30살이 넘은 우리 기도회에서는, 좀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쇄신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주님의 뜻이며 하느님이 원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이므로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한다.

네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교회 쇄신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과거에 하느님께서

두번에 걸쳐 일 하셨는데, 세(3)번째인 지금 우리시대(20세기)에는 성령 쇄신 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는 성령 쇄신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기도회 안에서만 은사의 표출하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하늘 끝까지 나의 말을 전하라"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위를 정리해보면, 우리 기도회원의 사명은,

**"하느님이 나와 교회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성령쇄신을 이 시대에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참조:** 차동엽 신부님의 EP-1234/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봉사팀)/ 성령과 사명(호세 콤포블린)/ 천주교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은사 세미나)

위의 내용은 **권혁윤 세례자 요한 형제님**의 기도회에서 가르침을 한 내용입니다. (1/28/08) 감사합니다.